

독자의 눈높이에 맞는 책이 곧 ‘양서良書’

EBS 〈책과의 만남〉, 〈라디오 문학관〉 PD 한승훈



‘보는 것’ 위주의 화려한 영상문화가 판을 치는 시대에 ‘소리’를 통해 ‘책’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마디로, ‘라디오는 살아 있다’를 증명하는 셈이다. EBS 〈책과의 만남〉과 〈라디오 문학관〉의 한승훈 프로듀서는 그런 사람들 중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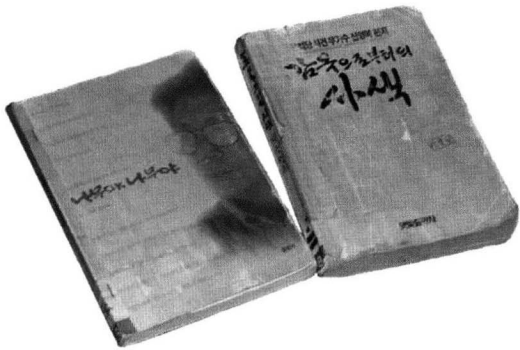
한승훈 PD는 11년 전 첫 직장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선택했다. 줄곧 어린이학습 프로그램을 연출하던 그가 〈책과의 만남〉과 인연을 맺은 것은 3년 전. 현재 〈책과의 만남〉과 함께 〈라디오 문학관〉(이협회 프로듀서 공동연출)을 연출하고 있는 그는 영상문화 시대에도 오디오 매체가 가진 장점들을 여전히 견재한다고 강조한다. 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다 편안하게 소개할 수 있고, 청취자들은 그런 정보성 있는 방송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 그래서인지 그의 프로그램들은 라디오 매체가 가진 장점들을 적극 활용한다는 특성을 갖는다.

2002년 초에 신설된 〈라디오 문학관〉은 ‘한국 근현대 소설 100선’이라는 부제로 문학작품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글로 된 소설을 라디오 드라마로 각색한 후 성우들의 목소리를 통해 들려준다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특징. 과거 유행했던 라디오 극본의 형식을 빌려오고 있지만 요즘 시대에 맞는 신선한 접근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한승훈 PD. 그는 성우들에게 고루한 신파조 연기보다는 담백하고 세련된 말투로 문학작품의 분위기를 전달해 달라고 요구한다. 라디오 매체가

가진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취자에게 책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 그의 임무이기 때문. 여기서 소개되는 책들은 일반 독자, 문학평론가, 작가, 고교교사(‘책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교사 모임’) 등으로 이루어진 선정위원들의 1,2차 추천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된다.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부터 박상우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까지, 그동안 청소년을 비롯한 청취자들은 연기자들의 맛깔스러운 목소리를 통해 옛이야기 듣듯 편안하게 책의 느낌을 전달받았다. ‘책이 있어 즐거운 일요일’이라는 부제의 〈책과의 만남〉은 청소년들을 주 청취자로 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서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도서 선정에 있어 외부 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는지만 최대한 공정한 내부심사를 통해 양서를 선정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원칙.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핀의 모험〉과 같은 문학서부터 요슈카 피셔의 《나는 달린다》와 같은 자전 에세이 집까지. 한승훈 PD는 청소년들에게 좀더 다양한 책을 소개한다는 취지에서 책의 분야를 한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선정된 도서는 전문 진행자 강연회 씨와 광동고등학교 교사 송승훈 씨의 입을 통해 대략적으로 소개되고, 성우들은 작품의 특성에 맞게 책의 주요 부분을 낭독한다. 활발한 반응은 아니지만 학생들의 반응이 있을 때마다 성취감을 얻는다는 한 PD는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책을 꽂아놓을 때가 제일 좋아요. 말없이 책을 가져가놓고 안 돌려주는 사람이 제일 밉죠.”

그의 꿈은 개인 서재를 갖는 것. 좋은 집이나 값진 귀중품보다 ‘책’이 좋다는 한승훈 PD는 자신의 서가에 꽂힌 ‘내 삶의 책’으로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과 《나무야, 나무야》를 꼽았다. 예전에는 ‘청년학도’가 읽어야 할 필수도서였지만 지금은 386세대들에게만 자주 회고되는 추억의 도서들. 그는 특히, 이성복, 홍세화 씨의 책은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손에 들게 된다면서 ‘애장도서’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표했다. 일상적으로 책을 접하는 일을 하는 한승훈 PD가 추천한 최근 도서는 황대권 씨의 《야생초 편지》. 그는 방송을 통해서만 문학작품을 주로 소개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집을 선호한다.



EBS <책과의 만남>, <라디오 문학관> 한승훈 PD가 아낀다는 두 권의 책. 신영복씨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과 《나무야, 나무야》 PD 한승훈



“책 하면 딱딱하고 아카데미즘한 이미지가 많은 게 사실이죠.”

작년 한 해 다양한 매체에서 책읽기 운동을 하긴 했지만 다른 민족들에 비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멀리하는 것은 사실. 한승훈 PD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어렵다’고 고정된 책의 이미지가 부담 없이 편안한 것이 되길 바란다.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며 공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책을 읽는데 시간을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 그는 가요, 영화 등 많은 문화들이 한국 위주로 발전하지만 책은 갈수록 번역서 위주로 발전하는 것 같으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번역물보다는 국내 창작물이 신간도서 코너에 많이 등장하고, 자신의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되었으면 하는 것이 연출자로서,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갖는 그의 또 다른 바람이다.

“밑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의 용돈 목록 중에 책 구입 목록이 정해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승훈 PD는 학생들 스스로가 읽고 싶은 책을 직접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터넷 서점보다는 동네 서점에 나가 직접 책을 고르고, 표지만이라도 마음에 들면 일단 책꽂이에 꽂아놓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펼쳐보게 된다면 그 책은 그만큼의 값어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매체가 청소년들에게 북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은 좋지만 너무 단정적으로 일정 책을 강요하는 것에 반대한다. 학생들 스스로 느끼고, 수용하고, 비판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 그래서 앞으로의 <책과의 만남>은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서를 소개할 예정이다.

<책과의 만남>과 <라디오 문학관>은 화려하게 매체의 중심을 장악하는 인기 프로그램은 아니다. 그렇지만 내실 없이 외양만 화려한 도서들이 나오고 있는 요즘, 청소년들과 일반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양서를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높은 데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일반인들의 눈높이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한승훈 PD의 소박한 2003년 계획이기도 하다.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